



## U.S WEEKLY



박현지

02 3770 2611

hyunjee.park@yuantakorea.com

조윤수

02 3770 3682

yunsu.jo@yuantakorea.com

## Key Data(04/23)

지수	S&P 500
증가 (pt)	4,180.2
시가총액 (십억달러)	36,962.3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742.7
52주 최고가 (pt)	4,185.5
52주 최저가 (pt)	2,820.0
1M 수익률 (%)	7.5

## Key Data(04/23)

지수	다우존스
증가 (pt)	34,043.5
시가총액 (십억달러)	10,342.7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144.8
52주 최고가 (pt)	34,200.7
52주 최저가 (pt)	23,248.0
1M 수익률 (%)	5.0

## Key Data(04/23)

지수	나스닥
증가 (pt)	14,016.8
시가총액 (십억달러)	23,036.3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680.4
52주 최고가 (pt)	14,095.5
52주 최저가 (pt)	8,604.9
1M 수익률 (%)	8.1

## YUANTA US WEEKLY



## 차익실현 행보 두드러졌다

## Weekly Review (04/19~ 04/23)

## 바이든정부, 추가 부양책 재원을 세금을 통해 마련하려해

1) 기업 호실적과 경기낙관론은 여전했지만 주 초반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행보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인도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글로벌 최대치인 31만4,935명을 기록했고 바이든 정부의 세금확대 소식이 주 후반에 들어서 약재로 작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인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세율을 기존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인프라법 안에 이은 1조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안을 위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겠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행보로 판단됨).

2) 주요 실물지표들의 개선세가 지속됐다. IHS 마킷 4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PMI) 잠정치가 60.6으로 전월 59.1 보다 개선됐다 (2007년 이후 최고치). 서비스업 PMI도 63.1로 전월 60.4를 넘어섰다. 그 외 주요 실업지표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54만7천건으로 작년 3월 이후로 최저치 또다시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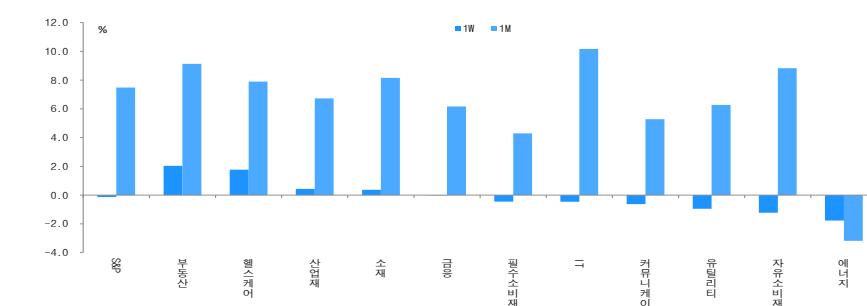
## Weekly Performance

	종가	1W	1M	3M	YTD	PER(TTM)	PBR(최근공시)
S&P 500	4,135.0	-1.2	6.3	7.6	10.1	32.0	4.5
다우	33,815.9	-1.1	4.3	9.1	10.5	26.7	5.1
나스닥	13,818.4	-1.7	6.6	2.0	7.2	113.8	6.7
러셀 1000	2,332.0	-1.2	6.5	7.2	10.0	33.3	4.4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업종별 등락률(%)

## S&amp;P 500 11 개 섹터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S&amp;P500 상승 종목 Top5

(단위: 억 달러, %)

종목코드	종목명	1W 수익률	시가총액(십억달러)
EFX	에튜팩스	21.17	27.95
ENPH	ENPHASE ENERGY	18.30	22.64
KSU	캔사스 시티 서던	17.64	27.43
DISH	디쉬 네트웍스	14.81	22.35
EW	에드워드라이프 사이언스	10.04	60.62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S&amp;P500 하락 종목 Top5

(단위: 억 달러, %)

종목코드	종목명	1W 수익률	시가총액(십억달러)
NFLX	넷플릭스	-8.82	224.16
HAL	할리버튼	-7.79	16.94
INTC	인텔	-6.90	239.21
HBAN	한팅턴 밴크쉐어즈	-6.11	15.17
CMG	치폴레멕시칸그릴	-5.26	41.35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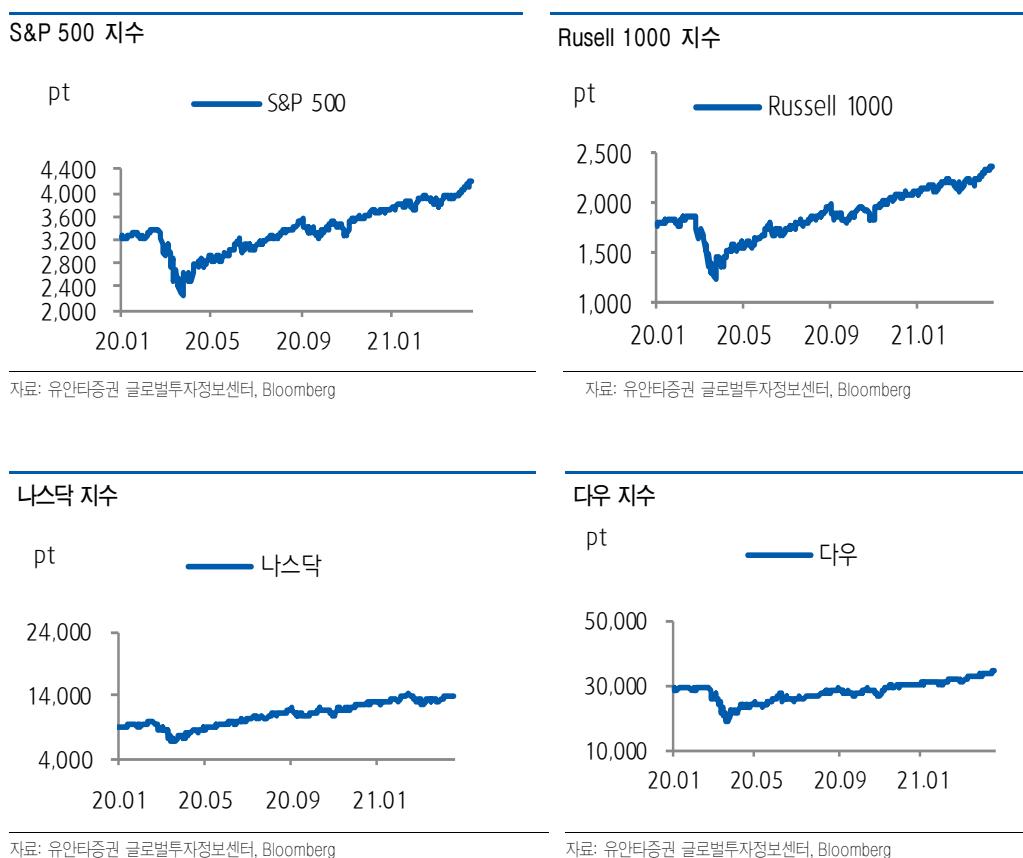
# Preview

## 금주는 실적시즌 3주차, 예상대로 기업실적 호조이어져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고점에 도달한 후 3, 4분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반기 미국 경기 부양책과 경제 재개에 따른 동력이 소진되고 기업실적의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시점부터, 오히려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회복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럽, 코로나19사태로 부터의 회복세 미국보다 더딘 상황). 이런 경기회복 시차를 감안하면 2분기 이후로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경기민감주를 선별해 투자를 이어가는 전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GDP 성장률, PCE 가격지수 등의 실물지표와 FOMC회의에 주목

금주에는 구글,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트위터 등의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이 대거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S&P500기업의 약 23.2% (500개 중 116곳) 가 실적발표를 한 가운데, 이중 75.9%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주요 실물지표로는 1분기 GDP성장률, 3월 내구재수주, 4월 컨퍼런스보드 (CB) 소비자신뢰지수, 3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 4월 소비자심리 및 소비자기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 외 중요 경제이벤트로는 27-28일(현지시각) FOMC회의가 있다. 현재로써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인상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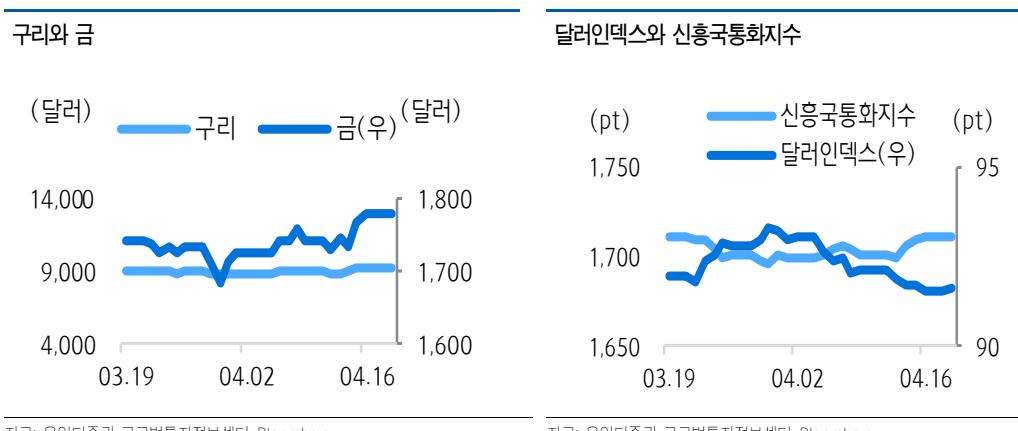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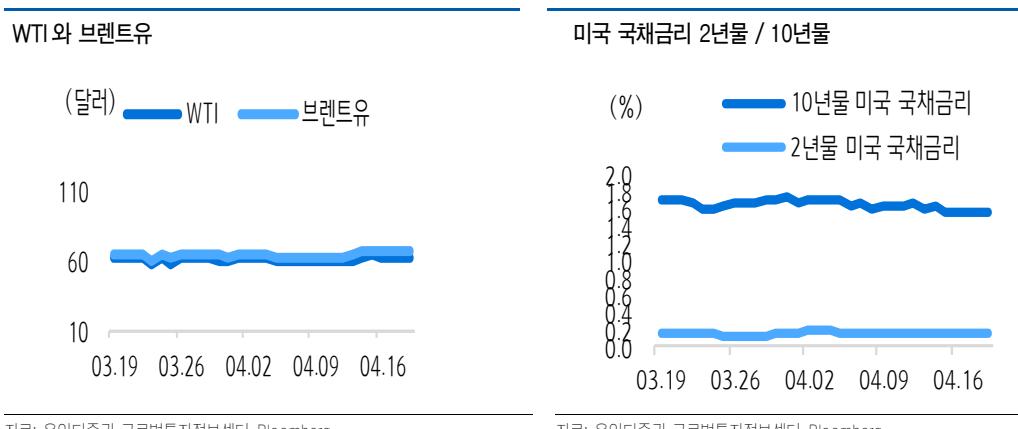


##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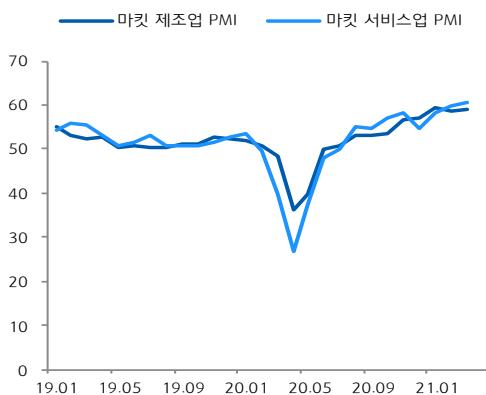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유가 상승세 주춤해져

주간기준으로 국제유가인 WTI는 배럴당 1.57% 하락한 62.14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WHO는 글로벌 확진자수가 재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4차 유행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인도의 일일 확진자수는 지난주 역대 최대치에 달한데다 일본도 신규 확진자수가 5천명을 돌파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유가 하락세를 부추겼지만, 미국 실물지표들의 개선세는 유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달러화가 주간기준으로 0.76% 하락했음에도 금값은 0.13% 하락했다.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16 1.59에서 4/23 1.58%로 소폭 하락했고, 30년물 국채수익률도 4/16 2.26%에서 4/23 2.25%로 소폭 하락했다. 미국의 1조9천억 달러 부양책 관련 지출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법안은 아직 논의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당장 5월내로 미국이 국채 발행을 추가로 늘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4월 미국 마킷 제조업/서비스업 PMI 각각 60.6과 63.1 기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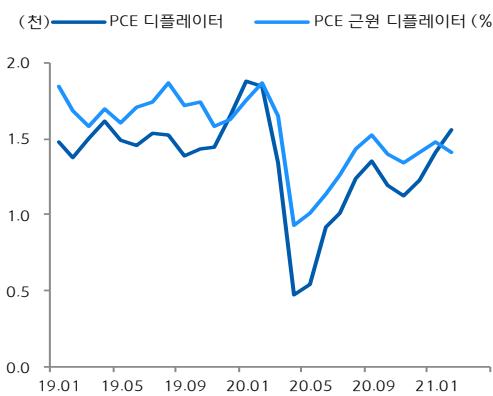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CB 선행지수 3월 개선세에 이어 4월에도 지속될지 여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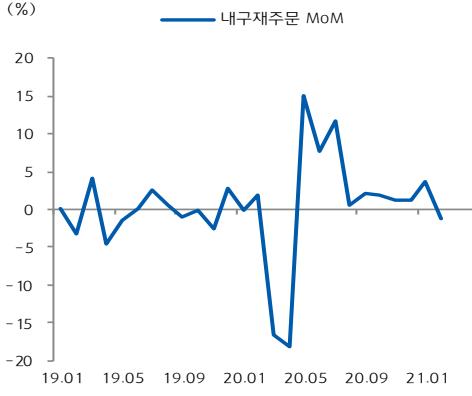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3월 근원 PCE 가격지수 전월대비 0.3%, 전년대비 1.8%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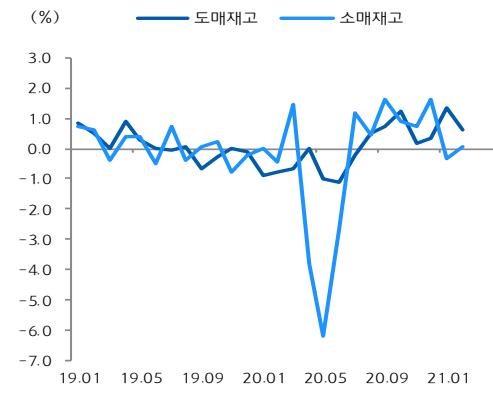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2월 내구재주문 MoM 1.2% 감소, 3월 내구재주문 잠정치 금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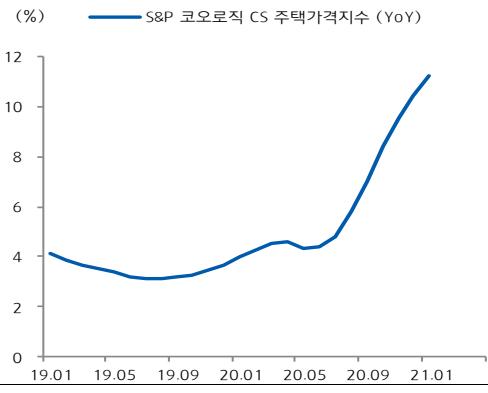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3월 도매재고 0.6% 증가, 예상치인 0.5% 증가를 상회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미국 주택가격지수 1월부터 강한 상승세 이어가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박현지, 조윤수)
- 위 종목은 Yuanta Greater China Daily에 수록된 Yuanta Investment Consulting(대만) 소속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와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준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